

슈틸리케 감독 아시안컵 엔트리 발표

“우리가 100% 우리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아시안컵이 끝나는 1월 31일까지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울리 슈틸리케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이 다음 달 아시안컵에 출전할 선수 23명을 확정하며 이 대회 제패에 대한 열의를 밝혔다.

“목표는, 성적 보다 성장”



울리 슈틸리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다음달 호주에서 열리는 아시안컵에 나설 최종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이정협, 타깃맨 발탁...상대 수비진에서 충분한 역할 해줄 것
잘하는 팀도 우승 보장 없어...똥똥 뭉쳐 국민에 희망 주겠다”

한국은 오는 27일 호주 시드니로 떠나 다음 달 4일 사우디아라비아와 평가전을 치르며 조직력을 끌어올린다. 이번 아시안컵에서 한국은 A조에 편성돼 오만, 쿠웨이트, 개최국 호주와 차례로 맞붙는다.

다음은 슈틸리케 감독과의 일문일답.
-어떤 변화가 있는 선수 선발인가.
▲중앙 수비수 홍정호를 제외했다. 발등 부상이 있다고 들었다. 윤석영은 지난 주말에 선수 본인과 통화하고 퀸스파크의 의료진 소견서를 받아본 결과, 부상 때문에 부를 수 없었다. 선수 건강이 우선이다.

-박주영 대신 이정협을 뽑았는데.
▲이정협은 A매치 경험이 없고 구단에서도 백업요원인데 우리가 경기를 지켜보다가 부르기 결정했다. 대표팀에는 비슷한 스타일의 스트라이커들이 있다. 이동국, 김신욱을 타깃맨으로 염두에 뒀으나 부상 때문에 소집하지 못했다. 전형적 타깃맨을 찾다가 (이정협을 골랐고) 박주영을 최종적으로 제외하기로 했다.

-스트라이커를 소개해달라.
▲조영철, 이근호, 이정협 등 세 명의 선수는 모두 전략적, 전술적 판단으로 선발됐다. 조영철은 제로톱을 잘 소화할 수 있다. 이근호는 풍부한 경험과 많은 활동량을 높이 평가했다. 이정협은 전형적인 타깃맨 역할, 상대의 수비진 중심에서 충분히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시안컵 슬로건이 ‘타임 포 체인지(Time for change)’인데.

▲대표팀을 매우 잘 드러내는 적절한 문구다. 개인적으로도 마음에 든다. 경험이 많은 박주영 대신 경험이 없는 이정협을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은 감독인 나에게 있다. 55년 동안 한국이 어떻게 걸어왔는지 모르지만 지금이야말로 변화를 줄 수 있는 때라고 생각한다.

-아시안컵의 명확한 목표는 무엇인가.
▲더 나아진다는 것을 목표로 계속 준비해왔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을 볼 때 우리는 아시아 3위다. 우리 앞에 두 국가만 존재한다는 의미다. 우리는 물론 우승을 목표로 호주에 입성한다. 우리가 준비한 것을 100%한다면 대회 6경기에서 승리해 1월 31일까지 호주에서 살아남을 것인 것 같다.

-이번 대회를 앞두고 전할 메시지가 있다면. 신년 메시지는

▲축구 대표팀과 국민의 단합이다. 대표팀이 국민에 긍정적 메시지를 주고 국민도 대표팀을 응원할 때 선수들은 더 큰 힘을 얻는다. 대표팀은 경기장 위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희생하고 좋은 모습 보여줄 것이다. 축구에는 변수가 많다. 축구인으로서 40년 넘게 생활하면서 항상 잘하는 팀이 우승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을 안다. 모두가 우승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것은 약속한다. (한국어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연합뉴스

오직 성실함으로... ‘깜짝 원톱’ 이정협

자체 평가전 맹활약... 최전방 공격수 낙점

2015 호주 아시안컵 대표로 ‘깜짝’ 발탁된 이정협(23·상주 상무)은 “나도 소식을 듣고 놀랐다”고 했다.

이정협은 부상을 입은 이동국(전북 현대), 김신욱(울산 현대)과 발끝이 무뎠던 박주영(알사람) 등 경쟁한 선배들을 제치고 최전방 공격수로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그는 “대표팀에 처음으로 발탁돼 기쁘기도 하지만 군인 신분으로 국가를 위해 뛰게 돼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주어지는 본분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13시즌 부산에서 프로로 데뷔해 2골에 그친 이정협은 지난 시즌(4골)에도 상주에서 주전으로 자리를 잡지 못했다. 지난 시즌 풀타임을 소화한 것은 단 2경기에 불과하다.

그러나 제주 전에서 훈련에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임하는 그를 슈틸리케 감독은 눈여겨 봤다. 이정협은 마지막 자체 연습 경기에서 골을 터뜨리며 결국 합격점을 받았다.

이정협은 “전에서 뽐냈다는 생각보다는 잘하는 선수들이 많으니 좋은 점 배우며 끝까지 마무리를 잘하자는 생각만 했다”면서 “동료들 모두 열심히 하는 분위기에 오늘 발탁 소식을 듣고 놀랐다”고 털어놨다.

이정협의 선인인 ‘에비역 병장’ 이근호(엘자이)도 이번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정협은 “근호 형처럼 되고 싶다”면서 “형과의 호흡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늘 응원해 주는 상주시민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축구대표팀 아시안컵 명단

<b>FW</b>	조영철(카타르SC) 이근호(엘자이) 이정협(상주)
<b>MF</b>	이명주(알아인) 기성용(스완지시티) 한국영(카타르SC) 손흥민(레버쿠젠) 김민우(사간토스) 구자철(마인츠05) 남태희(레퀴아SC) 한교원(전북) 이상용(보통)
<b>DF</b>	김진수(호펜하임) 박주호(마인츠05) 장현수(광저우 루이) 김영권(광저우 에버그란데) 김주영(서울) 곽태휘(알힐랄) 김항수(가시와 레이솔) 차두리(서울)
<b>GK</b>	김진현(세레스 오사카) 김승규(울산) 정성룡(수원)

연합뉴스

류승우, 레버쿠젠서 “4년 더”

獨 구단과 계약...2부리그 임대도 6개월 연장

류승우(21)가 독일 프로축구 바이엘 레버쿠젠과의 계약을 2018년까지 연장했다. 그의 브라운슈바이크(2부리그) 임대 기간도 6개월 늘어났다.

레버쿠젠은 구단과 류승우가 2018년까지 계약했다고 21일(한국시간) 구단 홈페이지에서 밝혔다. 아울러 그가 현재 임대된 팀 브라운슈바이크(2부리그)와의 계약도 6개월 연장했다고 덧붙였다.

류승우는 지난해 12월 프로축구 제주 유나이티드에 입단하자마자 레버쿠젠으로 1년 임대됐다. 그러나 K리그 복귀를 앞두고 19일 레버쿠젠으로 완전 이적했다고 알려졌다.

다만 계약 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였다. 류승우는 올 시즌이 끝날 때까지는 브라운슈바이크 유니폼을 입고 뒀 전망이다.

레버쿠젠에서 출전 기회를 잡지 못한 류승우는 올여름부터 연말까지 브라운슈바이크로 다시 임대된 상태다. 브라운슈바이크에서는 정규리그 12경기에 나와 4골을 올리며 활약하고 있다.

류승우의 활약 속에 브라운슈바이크는 독일 2부리그 18개 팀 가운데 4위에 올라 내년 1부 승격 희망을 키워가고 있다.



류승우

광주FC 남기일 감독 ‘특별상’

광주시축구협 ‘축구인의 밤’...광주대·금호고 ‘우수팀’

광주축구인들이 성공적이었던 2014시즌을 자축했다. 광주시축구협회(회장 기영욱)가 22일 프라도 호텔에서 ‘2014 축구인의 밤’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광주 FC의 클래식 리그(1부) 승격을 지휘한 광주 남기일 감독이 특별상을 받았다. 올 시즌 U-LEAGUE 권역별 대회에서 3년 연속 무패 우승을 차지한 광주대와 2014 올인 K리그 주니어-제22회 백록기 전국고교축구대회를 제패한 금호고는 우수팀에 선정됐다. 광주대 정평열 감독과 금호고 최수용 감독은 우수 지도자상을 받았다. 광주대 김형섭 등 17명의 선수는 우수선수로 시상대에 올랐다. 광

주 FC 주치의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선대병원 정형외과 이준영 교수는 공로패를 받았다.

◇2014 광주 축구인의 밤 시상내역

▲특별상 : 남기일(광주 FC 감독) ▲우수팀 : 광주대 금호고 ▲우수지도자 : 정평열(광주대 감독) 최수용(금호고 감독) ▲우수선수 : 이강산(경양초) 남상준(광주남초) 안은규(송정서초) 김선혁(월곡초) 이지후(하남중앙초) 김도연(북성중) 정동진(광덕중) 조혜민(광산중) 현진희(운남고) 임영욱(금호고) 박형운(송의고) 김기수(조선대) 고태원(호남대) 김형섭(광주대) 박민혁(조선이공대) 박광은(동강대) 김욱천(남부대) ▲공로패 : 이준영(조선대병원)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